

발 건강관리도 웰빙형 추구...

안마기 · 족탕기에 초음파 · 저주파까지 ... 특허출원 231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발 관리 관련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발 관리 관련특허 출원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총 231건에 달했고, 특히 2000년부터 출원이 급증해 최근 5년간(2000-2004년) 전체 출원의 86.1%, 199건을 차지했다.

총 231건 중 내국인 출원은 97%를 나타냈고 내국인 출원 225건 중 개인출원이 97%(218건)를 차지하고 있다. 발 관리 관련 안마기, 족탕기 등은 간단한 아이디어에 의해서도 개량발명이 탄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술유형은 전동형 안마기가 45%(104건)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기구형 안마기 34%(78건), 족탕기 15%(35건) 순이며 특히 전동형 안마기와 기구형 안마기가 총 출원 231건의 79%(182건)를 차지했다.

발 관리 관련특허 출원은 전동형 및 기구형 안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마기능 외에도 훈증과 찜질 기능 부가, 좌욕기능, 다른 신체부위도 마사지할 수 있는 것 등 다양하고 복합된 기술이 적용된 발명이 많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관리 관련특허 출원동향

(단위: 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 계
내국인	4	3	2	6	14	25	42	42	41	46	225
외국인	0	1	1	0	1	0	1	2	0	0	6
합 계	4	4	3	6	15	25	43	44	41	46	231

발 관리 관련특허는 안마기, 족탕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안마기는 전동형과 기구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전동형 안마기는 모터나 공기압을 이용해 자동으로 발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식이고, 기구형 안마기는 수동으로 사용자가 롤러 또는 패드의 형태의 것으로 발을 눌러 주는 방식이며, 족탕기는 물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와 공기방울 발생기가 달린 수조 형태이고, 그밖에 훈증, 원적외선, 초음파, 저주파 등을 이용한 특허도 출원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5/10>